

## News

### 은행도 중소기업에 매출채권보험 소개·계약권유 가능

연합뉴스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도 중소기업이 매출채권 보험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어...금융위는 23일 이런 내용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의결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추가됨에 따라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어

### 2030 해외주식 직투에 달려 선호까지... 외화예금 사상 최대

국민일보

지난달 말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전달보다 36억 1,000만 달러 늘어난 845억 3,000만 달러로 2012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 기록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달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데다 2030세대의 해외주식 '직투'(직접투자)가 급증한 결과...

### 케이뱅크, '두지붕' 비씨카드·우리은행 품으로... 영업정상화 속도

머니S

금융위,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BC카드(34%)와 우리은행(19.9%)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 우리은행 관계자, "케이뱅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주주 역할만 하게 될 것...은행법에 따라 절차상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

### 진격의 카드사 車할부금융...레버리지 ↑ "날개 단다"

머니투데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판매 사업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카드사들이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몰려... 사업·영업 확장에 나서려는 카드사들의 발목을 늘 잡았던 레버리지 배율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특히 호재...덕분에 자산을 늘릴 수 있게 돼 자동차 할부 금융 영업 확대가 가능해져

### 수익률 격차 최대 13%...코로나 속 '로또' 된 변액보험

데일리리안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국내 22개 생보사들의 직전 1년 간 변액보험 펀드 평균 수익률은 2.03%로 집계 ELS 집중한 KB생명 '쪽박'...해외투자 승부 건 미래에셋생명 '대박'...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시장 불확실성 지속...이어지는 고객 불안

### 한화생명 '대주주 부당 지원' 중징계 위기

디지털타임스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본사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시키고 공사비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줘... 기관경고 중징계가 확정되면 1년간 신규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한화생명은 이미 2017년 자살보험금 사태로 한차례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어

### 주식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손익통산 5년 합산키로

매일경제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던 방침을 수정해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기로 결정...거래세도 1년 앞당겨 인하착수 손실 금액을 나중에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인 '이월공제' 기간은 3년이 아닌 5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

### 증권사 한도도 찼다...증거금을 인상

이데일리

빚 내서 주식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면서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한도도 높아져...증권사들 예탁증권 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신용융자 증거금율을 올리는 등 리스크 관리 미래에셋대우, 3월 말부터 이달 20일까지 신용융자 잔고가 1조 2,956억원 급증해 28개 증권사 중 가장 많이 증가...NH투자증권은 1조 128억원 늘어나 두 번째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일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